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 - 반성적 판단력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 I

하 선 규**

【논문개요】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반성(reflektieren; reflexion)’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3비판서에서 고유한 선험적 원리의 근원으로 등장하여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심의능력이 반성적 판단력이며, 이에 따라 ‘반성’ 개념이 저작 전반에 걸쳐 판단의 원리, 판단의 종류 및 판단과정의 독특한 양상을 해명하는 중요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의 의미를 해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칸트의 서술이 전체적으로 특수한 경험법칙들의 체계, 이른바 ‘논리적 체계의 형식(Form der logischen Systems)’(제1서론 V)을 모색하는 판단력의 관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론적 인식의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술만을 그대로 따를 경우, 반성은 ‘개념적-법칙적으로 종합하고 통일하는’ 규정적 판단력의 예비적 고찰에 다를 아닐 것이며, 반성적 판단력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개별 현상들로부터 일반화된 규칙을 추출해내는 발견의 논리, 이른바 ‘귀납논리(Induktionslogik)’의 문제로 귀결되어, 반성적 판단력이 어떤 의미에서 고유

* 본고는 2004. 10. 9.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칸트서거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제3회) “칸트와 21세기 철학”에서 발표된 원고를 약간 수정, 축소한 것이다. 발표문에 대해 값진 조언을 해 주신 최준호 선생님, 본고를 집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홍익대학교 김진엽 선생님과 미학과 대학원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경주대학교

한 선형적-능동적 원리를 지닌 심의능력인지가 온전하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인 특수자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밝히고, 이어 반성 자체의 의미, 즉 반성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의능력들의 어떠한 활동상태를 의미하는가를 재구성해 본다. 칸트 저작 전체를 포괄하는 내재적 독해를 통해, 우연적인 '특수자' 개념이 개별적인 경험법칙들은 물론, '능산적 자연'이 보여주는 독특한 외적 형태와 내적 본성(구조), 이 외적 형태와 내적 본성(구조) 사이의 연관성, 나아가 미감적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과 '현상계의 존재론'이 선취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현실의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순수이성비판』의 「반성개념의 모호성」에 서술된 '초월적 반성' 개념을 원용하여,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작용을 특정 개념을 향한 개별자들 사이의 비교와 구분이 아니라, 특수자의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das intersubjektive Horizont der bedeutsamen Form oder Struktur)'을 확보하는 초월적 성찰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해석학적 재구성이 단지 가능한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의 현대적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과정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취미판단의 선형적-원리적 문제와 핵심 논점들에 적용시켜 본다.

주제어 반성적 판단력, 반성개념, 합목적성, 특수자, 우연성, 의미 있는 형식, 구체적인 세계지평, 대상의 판정, 의미 일반, 미적 이념

I. 들어가는 말

칸트의 제3비판서 『판단력비판』은 1790년 출간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미학, 예술론, 목적론, 생철학, 철학적 인간학 등 다양한 철학적 담론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우선 피히테, 쉴러, 셸링, 쾰더린, 피테, 헤겔 등 당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젊은 사상가와 문필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19세기 비셔(Th. Vischer), 로젠크란츠, 쇼펜하우어, 니체, 신칸트학과 등을 거쳐, 20세기 달타이, 짐멜, 하이데거, 아도르노 등의 철학자와 영미 분석미학은 물론, 료타르, 들뢰즈 등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사상적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¹⁾ 특정한 철학적-사상적 관점과 예술(사)적 관심에 따라 『판단력비판』이 지닌 현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어 온 것이다.²⁾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력비판』이 이렇듯 변화가 심한 영향사를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작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판단력비판』의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역설적이게도, 불분명하고, 중의적(重意的)이며, 때때로 혼란스럽기까지 한 개념과 논증에 힘입고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은 몇 가지 예만 들어도 확연해진다. 개별자들에게만 둘러싸인 상태에서 보편자를 모색한다는 ‘반성적 판단력’, 이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인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 개념, 취미판단의 토대인 ‘관심(사심)없는 즐거움’, ‘감각취미’와 ‘반성취미’의 구분, 취미판단의 규정근거로서 ‘목적 없는 합목적성(합목적성의 형식)’,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가 지향하는 ‘인식 일반’의 의미, 이 ‘인식 일반’과 ‘미적 이념’의 관계, 반성적 판단력을 위한 규제적 개념으로서의 ‘자기목적’(생명체) 등 제3비판서의 중심적인 개념과 논점들은 좀처럼 하나의 의미로 명

1) Gerhardt, 1989, pp.98-101; Paetzold, 1983, pp.115-118; Scheer, 1997, pp.109-111

2) 목적론적 관점의 연구성과로 Driesch, 1924; Baumanns, 1965; McLaughlin, 1989; Spaemann, 1991, 분석적-경험적 엄밀성을 추구한 연구성과로 Crawford, 1974; Kulenkampff, 1978; Fricke, 1990; Otto, 1993, 주체의 통일성과 체계적 중요성을 조명한 연구성과로 Freudenberg, 1960; Düsing, 1968; Bartuschat, 1972, 미감적 경험의 이해와 현대예술에 대한 관심을 집목한 연구성과로 Biemel, 1959; Bubner, 1989; Lyotard, 1989; Spremberg, 1999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판단력비판』을 조명한, 김광명, 2003, 김석수, 2003, 박진, 2003 등이 있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한 박필배, 2003, 그리고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비판서 전체의 의미를 조명한 최준호, 1998, 아도르노 미학과 비교한 박영선, 2003 등이 있다.

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출중한 칸트연구자인 오데브레히트(Odebrecht, 1930)와 마크-보가우(Marc-Wogau, 1938)가 『판단력비판』에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변증법적 사유의 등장’을 읽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³⁾

게다가 『판단력비판』은 『순수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의 정초』, 『실천이성비판』 등 비판시기 다른 저작들 보다 훨씬 더 다성적(多聲的)인 텍스트층을 지니고 있다. 제3비판서에 대한 ‘정교한 판독(Durchbuchstabieren)’을 시도한 독자라면 누구나, 이 저작이 하나의 방법론 내지 글쓰기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한 텍스트가 아니라, 일상어에 대한 의미론적 내지 화용론적 구분, 표상과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를 통한 근본개념 및 근본원리의 규명⁴⁾, 경험심리학적 내지 현상학적 관찰과 서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Wieland, 2001, pp.22-23) 따라서 해석가는 『판단력비판』의 개념과 논점들을 분석할 때, 이들이 각각 어떤 텍스트층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연구사적 상황과 텍스트의 복합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력비판』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제3비판서가 어떤 의미에서 ‘비판적 과업’을 완수하는 저작인지(KU X), 이론철학 및 실천철학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어떤 고유한 문제를, 어떤 근원적인 경험의 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지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재구성은 제3비판서를 관통하고 있는 ‘반성(reflexion)’ 개념과 반성의 대상인 ‘우연적인 것’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룰 것이며, 방법론적으로는 ‘독자가 저자를 저자 자신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칸트 자신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단지, 공동의 대화에 있어서나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저술에 있어

3) Cf. 『판단력비판』은 “지금까지 오직 오해에 근거하여 영향을 미쳐왔다.” (Heidegger, 1961, p.126)

4) ‘비판적 분석(방법)’의 의미에 대해선, Nelson, 1974, pp.153-160 참조

서, 그 저자를 심지어 저자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저자가 자신의 개념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때때로 자기자신의 의도에 반(反)하여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KrV B 371, A 314)⁵⁾

우리는 비판적 해석학을 지향하면서 이 진술을 칸트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비판시기 및 비판시기 이전의 저작을 포괄한 칸트철학 전체를 염두에 둔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immanent) 독해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텍스트가 단지 암묵적으로 함축하고 있거나 불분명하게 암시하기만 한 논점들, 나아가 텍스트가 개념적 도구의 한계 내지 체계적-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상세하게 논의할 수 없었던 것까지를 가능한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할 것이다. 또한 칸트의 논의가 오늘날 철학적 성찰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하게 견지할 것이다.

5) 칸트의 3대 비판서와 『도덕형이상학 정초』는 관례에 따라 약어(KrV, KpV, KU, GMS)와 출간 당시 쪽수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른바 제1서론 철학 일반에 관하여는 약어(EE)와 로마자 단락을 표기한다. 다른 출간된 저작은 바이셰델판(ed. Wilhelm Weischedel, Werkausgabe 12 Bde., Frankfurt/M, 1957ff.)에 따라 로마자 권수와 쪽수로 인용하며, 기타 강의록 및 반성(Reflexionen)들은 프로이센 학술원판(AA)의 권수, 쪽수 및 R번호에 따라 인용한다.

II. 의미 있는 형식의 상호주관적 지평을 확보하는 반성

II.1.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

『판단력비판』에서 ‘반성(reflektieren: reflexion)’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3비판서에서 고유한 선형적 원리의 근원으로 등장하여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심의능력이 바로 반성적 판단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성개념은 판단력이 ‘반성의 조건과 관련하여 선형적으로 입법적’이란 부분(EE VIII), 취미판단을 내리는 주관이 대상을 ‘한것 반성 속에서(in der bloßen Reflexion) 판정한다’는 부분(KU 5)6), 미감적 판단 가운데 주관적 보편타당성을 요구하지 않는 ‘감각취미(Sinnen-Geschmack)’와 이를 요구하는 ‘반성취미(Reflexions-Geschmack)’의 구분(KU 22, EE VIII), 자연목적의 개념이 ‘현상의 한것 판정을 위한 규제적 원리로서 반성적 판단력’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부분(KU 270), 자연의 객관적 합목적성의 개념이 특정한 목적개념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에 대해 반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EE IX) 등 저작 전반에 걸쳐 판단의 원리, 판단의 종류 및 판단과정의 독특한 양상을 해명하는 중요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개념과 관련,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고 해석된 텍스트는 다음 부분일 것이다.

6) 칸트의 3대 비판서와 『도덕형이상학 정초』는 관례에 따라 약어(KrV, KpV, GMS)와 출간 당시 쪽수를 표시한다. 다만, 괄호 안에 쪽수만 기입한 경우는 『판단력비판』을 나타내며, 이른바 제1서론 철학 일반에 관하여는 약어(EE)와 로마자 단락을 표기한다. 다른 출간된 저작은 바이셰델판(ed. Wilhelm Weischedel, Werkausgabe 12 Bde., Frankfurt/M, 1957ff.)에 따라 로마자 권수와 쪽수로 인용하며, 기타 강의록 및 반성 R들은 아카데미판(AA)의 권수와 쪽수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력 일반은 특수자를 보편자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다. 보편자(규칙, 원리, 법칙)가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자를 이 보편자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판단력이 초월적 판단력으로서 이러한 포섭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만을 선형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도) 규정적이다. 하지만 오직 특수자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이 특수자에 대해 보편자를 찾아내야 하는 경우, 판단력은 단지 반성적이다.”(KU XXVI)⁷⁾

칸트가 구분하고 있는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인 개념 내지 원리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이에 입각하여 개별적인 대상을 판단할 경우, 판단력은 규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반면 주관이 개별적이며 특수한 대상들에 직면하여 이들을 아우르는 개념과 원리를 모색하고 찾아나가는 경우에 반성적 판단력을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대상적 인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판단력이 사실상 ‘규정적 판단력’과 같은 의미로 ‘어떤 것이 주어진 규칙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능력’(KrV B 171 A 132)⁸⁾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반면 특정 개념이나 규칙 없이 독특한 감정적 즐거움에 근거한 미감적 판단에 주목하는 『판단력비판』에서는 이러한 ‘반성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이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칸트는 이어서, 이러한 반성 활동이 직면한 특수자 내지 개별자를 ‘순수 오성이 선형적으로 부여하는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채 남겨진 (unbestimmt gelassen) 다양한 자연의 형식들(Formen der Natur)’ 내지는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로 명확히 하고, 반성 활동의 원리도 이에

7) “왜냐하면 이것은 [=판단력] 특수자를 보편자(이것의 개념이 주어져 있는) 아래에 포섭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특수자에 대하여 보편자를 찾는 능력이기도 하다”(EE IV)

8) Cf. “그러나 판단력은 하나의 독특하지만 전혀 자립적이지 않은 인식능력이기 에, 오성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지도, 이성처럼 대상에 대한 이념을 산출하지 않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판단력은 단지 다른 데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개념아래에 포섭하기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EE II)

따라 '특수한 경험법칙에 따른 경험의 체계를 가능케 할 목적으로 반성적 판단력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것의 통일의 원리'라 묘사한다.(KU XXVI-XXVII)⁹⁾ 이 통일의 원리가 바로 '자연의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der Natur)'개념이며, 이 개념은 '오직 반성하는 판단력 속에 그 근원이 있는 독특한 선험적 개념'이다.(KU XXVIII) 그리고 이 개념이 자연개념과 자유개념 사이를 매개하여 '순수한 이론이성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순수한 실천이성의 합법칙성으로의 이행'을(KU LV)¹⁰⁾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체계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로써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의 의미가 충분히 해명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의 해석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수한 경험법칙들 내지 자연대상의 개별형식들 사이에서 좀 더 상위의 보편적인 형식과 법칙을 모색한다는 '반성작용'의 의미가 암암리에 객관적-대상적 인식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반성'의 의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암묵적으로 대상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목표로 하는 '규정적 판단력'의 관점 위에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반성작용을 규정적 판단력의 이론적-대상적 인식의 관점에서, '모든 개념 이전(vor allem Begriff)'(EE IX)에만 유효한 것으로, 즉 주어진 개별자들을 '개념적-법칙적으로 종합하고 통일하는 일'을 통해 종결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반성적 판단력이 어떤 의미에서 규정적 판단력과 원리적으로 구별되는 능력인지, 왜 고유한 선험적 능력으로서 초월철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반성적 판단력의 문제는 사실상 개별 현상들로부터 일반화된 규칙을 추출

9) 제1서론에서는 이러한 반성의 원리를 '기교(Kunst)로서의 자연', '특수한 법칙에 있어서의 자연의 기술(Technik)'(EE II) 또는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EE V)이라 부르고, 이를 다시 '직관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인 자연의 형식적 기술(formale Technik)'(미감적 판단의 대상)과 '개념에 따른 합목적성인 자연의 실제적 기술(reale Technik)'(목적론적 판단의 대상, 특히 자연목적)으로 구분한다.(EE IX)

10) 최소인, 1997 참조

해내는 발견의 논리, 이른바 '귀납논리(Induktionslogik)'의 문제로 귀결된다.¹¹⁾

물론 '보편자, 즉 개념과 법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특수한 경험법칙들과 자연대상의 개별형식들을 마주하고 있음' - 이 두 가지 상황적 특징으로부터 규정적 판단력과 구별되는 반성적 판단력의 종적 특수성(differentia specifica)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경험법칙들 내지 개별형식들'로 표현된 특수자의 의미, 특수자들만이 주어져 있는 상황의 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의미, 이런 상황에서 시도되는 반성의 구체적인 양상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반성은 결국 '규정을 위한 반성'으로, '규정적 판단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 환원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¹²⁾

- 11) 실제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의 임무가 '자연에 있어서의 특수자로부터 보편자로 상승하는데'(KU XXVI) 있다고 말할 때, 또한 제1서론에서 반성적 판단력을 '주어진 표상에 의해 가능한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 이 표상에 대해 특정한 원리에 입각하여 반성하는 능력'(EE V)이라고 정의할 때, 반성의 의미는 귀납논리적 발견과 완전히 합치되는 듯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귀납논리 또는 개별성의 논리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노력이 근대미학과 『판단력비판』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임러가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1967, 특히 pp.170-251) 이러한 연구성과의 중요성은 물론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성'의 보다 더 폭넓고 근원적인 의미, 즉 삶, 문화, 역사의 구체적인 세계지평에서 의미 있는 형식과 구조를 초월적으로 확보하는 성찰의 의미는 '논리적-인식적 탐구'의 관점을 벗어나야 비로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 12) 여(658) 등도 가서 이미 자주 조명한 『판단력비판』과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연역론의 보론 「이성이념의 규제적 사용에 관하여」 및 「인간이성의 자연적 변증론의 궁극적 의도에 관하여」 부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성이념이 변증적 가상의 원인이 아니라, '체계적 통일성을 선취하는 이념'의 형태로 오성사용을 규제하고 인도하는 긍정적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B 670-732, A 642-704) 또한 '자연형식들의 동증성의 원리, 특수화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B 686, A 『판단력비판』의 '경험의 체계적 통일성'의 이념을(EE IV) 선취하고 있어,

반성의 의미와 차원을 논리적-인식적 규정과 평면적으로 대비시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칸트의 서술에서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자연개념과 관련하여, (...), 반성은 이미 자연 일반의 개념 속에서, 즉 오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있다. 판단력은 반성을 위한 특별한 원리가 필요치 않고, 선형적으로 반성을 도상화(schematisieren)하며 이 도상들을 모든 경험적 종합에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 종합이 없다면 어떠한 경험판단도 불가능할 것이다. 판단력은 이러한 자신의 반성 속에서 동시에 규정적이며, 판단력의 초월적 도상론이 동시에 판단력에 대해 주어진 경험적 직관을 포섭하는 규칙 역할을 하고 있다.”(EE V)

우리는 여기서 판단력의 반성이 반성적 판단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규정적 판단력에 있어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규정적 판단력의 반성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도상론에서 상세하게 해명된 감성과 오성 사이의 초월적 매개과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의 고유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반성적 판단력의 작용을 요구하는 ‘특수자’의 문제이다. 이것은 저 ‘순수오성이 선형적으로 부여하는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채 남겨진 것’이 뜻하는 바를 좀 더 상세하게 해명하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반성 자체의 의미, 즉 반성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심의능력들의 어

반성적 판단력이 사실상 규제적으로 사용된 이성이념의 후속개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Schiemann, 1992) 그러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론적-대상적 인식의 관점에서 이성이념의 역할을 해명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반성적 판단력이 마주하고 있는 특수자 내지 개별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Mertens, 1975), 무엇보다도 이성이념과 달리 반성적 판단력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미감적 판단과 유기체에 대한 목적론적 판단에서 ‘초월철학적(반성)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 등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떠난 활동상태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II.2. '우연적인 것'의 복합적 의미

특수자의 의미로 눈길을 돌려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듯이 보인다. 앞서 인용한 대로, 칸트 스스로 '다양한 자연형식들과 특수한 경험법칙들'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제1서론의 서술을 보자.

“우리는 순수이성의 비판에서, 모든 경험대상들의 총괄개념으로서의 자연 전체가 초월적 법칙에 따른, 즉 오성 자신이 선천적으로 부여하는 (즉 현상들이 하나의 의식 속에 결합되어 경험을 이루는 한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법칙에 따른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보았다. (...) 그러나 이로부터 경험법칙에 따른 자연도 인간의 인식능력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라는 결론, 그리고 자연현상들이 하나의 경험 속에서 예외 없이 체계적인 연관을 인간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 자체가 체계로서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험법칙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종적(異種的)이어서 (...) 이러한 경험법칙들 자체를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 아래에 동질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일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EE IV)

주지하듯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감성론과 초월적 논리학의 초월적 분석론을 통해 경험가능한 인식대상의 존재론적 근본원리를 밝혀냈다. 주관이 이론적 인식의 관심을 갖고 대상과 만날 때 미리 그려놓고 있는 대상성(Gegenständlichkeit)의 지형도를 감성의 선형적-형식적 원리(시간과 공간)와 오성의 선형적-형식적 원리(범주 및 경험의 근본원리)를 통해 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계의 존재론이 인간의 모든 경험 지평과 모든 구체적인 경험대상을 남김없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식들과 경험을 통해 알려지는 무수한 법칙들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선취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이성비

판』의 존재론은 대상이 ‘어떤 인식대상 일반으로서(als Gegenstand überhaupt)’ 주어질 때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보편타당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적 형식원리와 오성적 구조화의 원리를 밝히고 있지만, 개별대상의 구체적인 형식이 왜 이러저러한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 개별대상들 사이에 왜 이러저러한 법칙적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한 경험법칙들’은 유한한 주관의 선험적-형식적 원리에 의해 구성될 수 없는 ‘우연적인 것’ (KrV B 508, A 480; B 704, A 676; KU XXXIX; cf. KU XXXIII)이어서, 오성은 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EE V) 그래서 인식주관은 실험과 관찰, 가설, 추론 및 검증을 통해 특정한 법칙성을 찾아내려 할 때, 단지 이것의 확인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주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경험법칙과 다른 증명된 혹은 가능한 법칙들이 다시금 상위의 법칙 아래에 통합되어 체계적인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즉 경험법칙들의 체계적 통일성을 늘 전제하고 염두에 두면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칸트가 얘기한 ‘특수한 경험법칙들’과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로서의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³⁾

13) 유한한 주관에게 ‘규정되지 않은 채 남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성과에 해당된다. 예컨대 왜 모든 인식이 두 상이한 능력인 감성(수용성)과 오성(자발성)에 의해 가능한지, 왜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두 원천이 ‘초월적 시간규정인 도상’에 의해 서로 매개되어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왜 이성에게 이성이념을 실체화하여 변증적 가상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상존해 있는지 등등은 철학적 분석이 ‘주어진 사실(factum brutum)’로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을 뿐, 더 이상 그 가능성을 통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적 통찰은 우리가 근본역량들 또는 근본능력들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의 가능성을 어떤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으며, 임의로 꾸며내거나 가정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이러한 근본능력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KpV 81) 철학적 분석에 대한 이러한 경험내재적 관점은 이미 비판시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선, 졸고, 2000 참조

한편 '자연형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우선 개별 자연대상이 지닌 가시적인 외적 형태를 지시한다. 예컨대 특정한 광석이 보여주는 독특한 형태 또는 특정 식물이 보여주는 특이한 잎의 형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EE VI) 그런데 이들 외적 형태는 - 그 대상이 무기체이든 유기체이든 - 대상의 내적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형식'은 또한 대상의 고유한 내적 구조 내지 구성원리, 예를 들어 생명체의 각 기관(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전체를 이루는 구조와 기능방식도 의미한다. 주관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주어진 다양한 자연형식들을 고립시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들 사이에 어떤 구조적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대상의 내적 구조원리로부터 기인하는지를 함께 염두에 두면서 이들을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14)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3비판서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적 판단(취미 판단)과 숭고함에 대한 미감적 판단에 대해 '주관적 합목적성(subjektive Zweckmäßigkeit)'(KU §11, §25)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즉 어떤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 혹은 개별적인 예술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인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감정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현상계의 존재론이 전혀 그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선취할 수 없는 '우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로써 '우연적인 것' 또는 '합목적적인 것'의 의미가 모두 분명해진 것일까?15)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난 '우연적인 대상'에 만족

14) 자연형식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유기적-체계적 통일성을 제1서론에서는 '절대적 합목적성'(EE VI)이라 부르고, 후에 『판단력비판』에서는 '자연목적' (§§64-65)이라 칭한다. 발생학, 형태학, 계통학 등 생명체의 '합목적적 현상'을 연구하는 분과들에 대해선, Baumanns, 1965, pp.7-35 참조

15) 칸트는 이상 세 종류의 우연적(합목적적) 대상 이외에 객관적-형식적 합목적성과 객관적-외적(상대적) 합목적성을 구분하고 있다.(KU §§62-63, §67, §82) 그러나 전자는 수학적-이론적 인식을 통해 완전히 해명될 수 있는 경우이며, 후자는 이성이념에 입각한 '궁극목적(Endzweck)'이 설정되지 않는 한 개별 자연대상에 대해 아무런 설명가치가 없다.(cf. Spaemann, 1991, pp. 126-132)

하지 말고, 텍스트의 이면에 어떤 '우연성의 계기'가 함축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수한 경험법칙', '자연의 형식들', '미감적 대상' 등이 어떤 모습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특수자들을 경험하는 세계지평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판단력비판』에서 다루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논점들, 그리고 저작의 주제적 통일성을 명증하고 있는 '자연의 형식적 함목적성의 원리'이다.

우선 『판단력비판』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세계는 특수자가 단지 '보편자'의 한 요소(경우)로서가 아니라 특수자 자체 (als Besonderes)로서 드러나는 세계이다. 그것은 개별대상이 지닌 형식의 구체성과 법칙의 특수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의 개별성과 우연성이 축소되거나 다른 대상으로 소급되지 않고 주관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세계이다. 주관은 이제 이 세계의 이러한 개별적-우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가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찰, 실험, 탐구가 진행되는 세계이며, 주관이 개별대상이 보여주는 '의외의' 질서와 연관성에 놀라고 기뻐하는 세계이다. (KU XL; KU §62)

그리고 『판단력비판』의 세계는 자연이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연(유기체)과 죽어있는 자연(비유기체)으로 구분되고, 또한 유기체들도 류적으로 내지 종적으로 세분되어 있는 세계이다. 이른바 소산적 자연(natura naturata)으로서가 아니라 능산적 자연(natura naturans)으로서의 자연이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이다. 여기서 주관은 각각의 유기체를 맹목적인 자연의 물리적 법칙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적 구조와 기능방식을 가진 '자기목적'(KU §§64-66)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개별 유기체의 탄생, 성장, 생식, 사멸 등 다양한 생명현상(Lebenserscheinungen)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할 뿐 아니라, 개별 유기체들 사이의 실제적인 연관성, 즉 생물학적-생태학적으로 가능한 체계성과 통일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식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판단력비판』의 세계는 자연과 예술이 개별적인 미감적 판단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세계이다. 주관은 여기서 보편적인 법칙이 관철되는 자연, 객관적 성질을 가진 '사물'로서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의 자연, '풍경'으로서의 자연의 형상과 예술작품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바라보고 정서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존재론적 근본범주로서의 '상황(Situation)'이 객관적인 개별 사실들(objektive Tatsachen)로 환원되지 않은 세계이며(Schmitz, 1990), 주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락함, 아름다움, 숭고함, 선함 등 다양한 감정적 누앙스를 띠고 있는 개별대상을 경험하고, 또 평가하고 있다.(cf. KU §§3-5)

그런데 여기서 자연과 예술이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세계가 자연과 기술(인위) 내지 자연과 문화의 근본적인 구분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판단력비판』의 세계는 자연의 구체적인 형상과 개별 법칙이 알려지는 세계, 유기체의 개체존속 및 종족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 다양한 문화적 상징형식(카시러)이 기능하고 (재)생산되고 있는 '생활세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의식성(Bewußtheit)', '목적합리성(Zweckrationalität)', '규범성(Normativität)'에 근거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실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짧게 요약하자면, 『판단력비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세계지평은 '삶(생명), 문화, 역사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상황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세계가 이론철학은 물론, 실천철학에 의해서도 존재론적으로 선회될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반성적 판단력의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는 주관이 이러한 세계에 직면하여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의미 있는 구체적 인식과 경험, 의미 있는 실천 일반을 초월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¹⁶⁾

16) 칸트가 얘기하는 판단력의 이른바 '초감성적 기체의 규정가능성'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오성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선험적 법칙의

마지막으로 덧붙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판단력비판』, 특히 미적 분석론이 함축하고 있는 주관성의 모습 또한 이러한 세계지평의 의미에 상응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주관은 『순수이성비판』이나 『실천이성비판』처럼 보편타당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선험적-종합적 통일을 수행하고 있는 초월적 주관(das transzendentales Subjekt)이 아니다. 물론 이 주관도 사적-주관적인 세계에 함몰된 개체로서의 주관이 아니라, 공통적인 의사소통이성을 신뢰하고 보편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주관이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 인식의 초월적 주관과 달리,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의미 있는 세계연관(Weltbezug)을 성찰하고 기획하는 주관이다. 그것은 개별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관적으로 보편타당한'(KU 23) 미감적 가치평가를 추구하고 있는 '공통감(sensus communis)의 주관' 내지 '문화적 규범'(Mayer, 1903)의 주관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자. 반성적 판단력이 주목하고 있는 '특수자'는 단순히 아직 개념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개별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오성의 손길을 벗어나 있는 '우연적인' 개별자의 모습,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개별자의 형식들과 법칙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능산적 자연'이 보여주는 독특한 외적 형태와 내적 본성(구조), 이 외적 형태와 내적 본성(구조) 사이의 연관성, 나아가 미감적 경험의 대상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현상으로서의 자연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오성은 이로써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가 있음을 지시하고 있으나, 이 기체를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은 채 남겨둔다. 판단력은, 자연의 가능한 특수한 법칙들에 따라 자연을 판정하는 자신의 선험적 원리를 통해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가(우리들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지성적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Bestimmbarkeit durch das intellektuelle Vermögen) 마련한다. 그러나 이성 은 자신의 선험적인 실천적 법칙에 의해 바로 이 초감성적 기체에 규정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판단력은 자연개념의 영역으로부터 자유개념의 영역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KU LVI-LVII) 이에 대해선, 강영안, 1997, 최소인, 1997 참조

으로서의 자연과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이미지가 속한다.¹⁷⁾ 또한 이 특수자에는 현상계의 존재론이 선취할 수 없었던 세계지평의 모습, 즉 삶, 문화, 역사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현실의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 '반성'은 우연적인 개별대상의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며, '모든 개념화 이전에' 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의미 있는 연관관계, 이른바 '합목적적인 체계성과 통일성'을 초월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다.

II.3. 반성과정의 초월적 의미

이제 반성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상과 심의능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제1서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데 반성한다(숙고한다)는 것은: 주어진 표상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개념과 관련하여 이 표상을 다른 표상들과 비교하고 대조하거나 혹은 자신의 인식능력들과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일을 뜻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우리가 판정능력(facultas diiudicandi)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EE V)

우리는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이 어떻게 고트셰드, 라이프니츠-볼프, 바움가르텐, 술처 등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없다.¹⁸⁾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칸트가 '반성작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반성의 지향점이 '가능한 개념'으로 설정된 것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성의 핵심은 표상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

17) 자연스럽게 목적론적 반성을 유도하는 '우연적인 것'의 복합적인 의미는 이미 비판시기 이전 칸트 저작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1760년대 자연신학적 저작에 등장하는 '우연적인 것'은 자연대상의 존재와 본성, 특수한 경험법칙들이 더 포괄적인 상위법칙 내지 원인 아래에 포섭되는 것, 자연 전체가 보여주는 체계적 질서와 이로부터 비롯하는 아름다움의 감정, 다양한 생명현상들의 존재가능성 등 복합적인 외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졸고, 1999 참조)

18) 이에 대해선, Baeumler, 1967, pp.83-95

하는 일, 그리고 표상들을 인식능력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에 있다. 그러나 '반성'의 의미는 여전히 애매하다. 어떤 표상들이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는가? 표상들과 비교되는 인식능력들은 어떤 것들인가? 왜 이러한 비교와 대조가 불가피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비교와 대조가 일어나는 구체적 인 동기와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는 반성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규명하기 위해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론과 초월적 변증론 사이에 위치한 보론 「경험적 오성사용과 초월적 오성사용의 혼동에 의한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대하여」를 들여다 봐야 한다.(KrV B 316-349, A 260-292) 칸트는 이 중요한 보론에서 표상들에 대한 논리적 비교에서 기인하는 '반성개념들'을 범주와 마찬가지로 판단형식의 표를 실마리로 삼아 찾아낸다. 양(Quantität) 범주와 관련된 '일양성'과 '차이성'(Einerleiheit und Verschiedenheit), 질(Qualität) 범주와 관련된 '일치성'과 '항쟁성'(Einstimmung und Widerstreit), 관계(Relation) 범주와 관련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Inneres und Äußeres), 양상(Modalität) 범주와 관련된 '형식'과 '질료'(Form und Materie) 등이 그것이다. 이들 반성개념은 단지 분석적 통일성의 표상으로서 내용적으로 공허한 논리적 비교개념(conceptus comparationis. KrV B 318, A 262)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유 안에서 종합적 통일성의 표상인 범주들과 혼동될 모호성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주관은 감성이 제공하는 감각재료 없이, 오직 반성개념을 활용한 사유만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소위 '지성주의적 철학체계', 즉 논리주의적(logizistisch) 형이상학 체계가 성립하게 되는 인식론적 오류의 근원이다. 사유가 다양한 대상과 술어에 대해 자신 안에서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상에 대한 종합적 인식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주관이 반성개념의 '모호성'에 현혹되어 이런 방식으로 감성의 도움 없이 인식을 확장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인식적 오류에 빠져 과도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¹⁹⁾

19) Nelson, 1974, pp.230-236; 반성개념 및 초월자들(transzendentalia)의

그래서 순수오성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좀 더 근본적인 사유의 행위(Handlung)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를 칸트는 '초월적 반성'(transzendente Reflexion)이라 부른다. 주관은 이 반성에서 주어진 표상들을 서로 비교하고, 표상들을 인식능력과 견주어보며(zusammenhalten), 이를 통해 이들 표상이 순수오성에 속한 것으로서 비교될 수 있는지, 감성적 직관에 속한 것으로서 비교될 수 있는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KrV B 317, A 261) 초월적 반성은 "만약 누군가가 선형적으로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자 하는 한,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의무(Pflicht)이다"(KrV B 319, A 263; cf. B 325f., A 270f.) 다시 말해서 동어반복이나 개념적 곡예가 아니라, 참된 인식을 추구하는 주관은 반드시 초월논리적 차원에서 주어진 표상들과 자신의 인식능력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견주어 보고 비교하는 반성을 수행하여, 이들 표상의 본질적 위상을 미리 자리매김해야 한다.²⁰⁾ 이들이 감성적 재료가 빠진 공허한 것인지, 개념적 일반화(추상화)가 불가능한 맹목적인 것인지, 또한 이들에 대해 단지 논리적인 비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숙고(반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

역사적 연원 및 칸트철학 형성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선, 박 진, 1998 참조. 하지만 이 논문과 달리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의 의미를, 우연적인 특수자들 사이에서 상호주관적 의미의 지평을 초월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한편, 스코투스, 칸트, 퍼스까지 이어지는 초월자들의 철학에 대한 탁월한 연구성과는 Honnefelder, 1990 이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적 철학 체계의 근본원리를 비판철학적 입장에서 상세하게 논박한 칸트의 저작은 "이전의 순수이성의 비판이 모든 새로운 순수이성의 비판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발견에 대하여(Ueber eine Entdeckung nach der alle neue Kritik der reinen Vernunft durch eine ältere entbehrlich gemacht werden soll)"(1790)이다.

- 20)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토파카를 따라서 이러한 숙고를 '초월적 토파카'라 부르고, 이를 통해 표상에게 부여되는 본질적 위상을 '초월적 장소'라 칭한다.(KrV B 324, A 268)

술하고 있다.

“숙고(Überlegung; reflexio)는 대상으로부터 바로 개념을 얻기 위해 대상 자체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 주관적 조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착수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숙고는 주어진 표상과 우리의 서로 다른 인식원천들의 관계에 대한 의식으로서, 오직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만 인식원천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규정될 수 있다.”(KrV B 316, A 260)

반성개념의 모호성 부분에서 전개된 이러한 논의를 곧바로 『판단력비판』의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개념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순수이성비판』의 논의가 반성개념의 위험성을 밝히고, ‘오성의 한계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참된 인식의 가능성을 확고히 한다는 이론적 관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로부터 반성작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읽어낼 수 있다.

첫째, 반성은 주관이 주어진 표상에 대한 개념적-대상적 규정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표상의 본질적-존재론적 위상을 내적으로 숙고하는 자기연관적 활동(selbstbezügliche Handlung)이다. 이러한 사유의 자기숙고 과정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초월적 차원에서 요청되어야 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준비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반성과정은 존재론적 근본원리에 의해 경험대상의 대상성의 구조가 정립되고 이 구조가 표상들을 선형적으로 포섭하기 전에 표상들의 본질적 성격과 가능성을 능동적인 심의능력들에 비취보면서 진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주관의 초월적 통각(보편적 자기의식 일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대상적 판단행위에 반영(reflektieren)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반성의 비교 및 대조 활동은 반성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객관적-대상적 규정에 따라 상이한 관점과 지침에 입각하여,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즉 초월논리적으로 구조화되

고 선취되는 대상성의 성격에 따라 반성과정의 전개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표상에 대한 내적 속고는 표상과 표상 사이, 그리고 표상과 능동적인 심의능력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들을 관계짓고 비교하고 견주어 보는 활동이므로, 이를 통해 표상과 표상 사이, 표상과 심의능력 사이, 그리고 심의능력과 심의능력 사이에 움직임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상과 심의능력들의 종류, 그리고 이들 사이의 움직임 또한, 방금 지적한 초월논리적 대상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넷째, 비록 칸트가 '초월적 토파카(장소론)'를 강조하면서 오성이 감성적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험을 차단하려 하지만, 이러한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논리주의적 형이상학체계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칸트 또한 반성개념의 모호성을 초월적 분석론의 보론으로 다루지 않고 초월적 분석론 속에 통합시켜 서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반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초월논리적 차원에서 해명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반성작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관의 대상규정 이전의 자기연관적 활동이므로, 심의능력과의 관계에서 표상의 의미와 위상을 잘못 설정하여 심의능력이 과도한 '인식'을 추구하게 되는 오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특수자의 폭넓은 함의와 반성작용의 초월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서 인용한 『판단력비판』에서의 서술을 고려하면서 이제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자. 우리는 먼저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을 단지 주어진 표상에 대한 특정 개념이나 범

21) 이런 맥락에서 칸트가 오류를 차단하는 초월적 반성을 일종의 당위로서 '의무'(B 319, A 263)라 표현하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칸트가 초월적 변증론을 통해 이성이념이 변증적 가상을 산출하는 내재적 기제(機制)를 규명했음에도, 「이성이념의 규제적 사용」, 「이성의 자원적 변증론의 최종의도」 등의 보론과 초월적 방법론의 「순수이성의 훈육」을 통해 사변적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성을 부단히 경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칙을 찾는 귀납적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주관이 다양한 특수자들의 표상을 '모든 개념적 규정 이전에' 이들 사이의 체계적 연관성과 통일성에 대해 초월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념적 규정'은 칸트철학 체계 안에서 논리적-인식적 의미에서의 대상규정과 실천적-도덕적 의미에서의 대상규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리고 '개념적 규정 이전에'는 앞서 인용한 '모든 개념화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체계적-초월적인 선회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²²⁾ 이것은 주관이 구체적인 경험세계의 다양한 형식(형상)과 법칙들을 아무런 전제 없는 '존재론적 진공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 구조와 통일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들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형상과 법칙들과 마주한 주관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것', 완전히 '카오스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의미 있는 형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선형적으로 선취하며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을, 특수자의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das intersubjektive Horizont der bedeutsamen Form oder Struktur)'을 확보하는 초월적 성찰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귀납논리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개별 경험대상(법칙)에 대한 귀납논리의 적용가능성을 인식론적으로 선취하는 반성이라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의미의 반성과정 없다면, 주관은 구체적 상황 속에 주어진 우연적인 특수자들 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며²³⁾, 자신의 인식은 물론, 어떠한 실천도 현실 속에

22) 반성의 초월적 원리에 대한 초월적 연역은 서론 V절 "자연의 형식적 함목적성의 원리는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이다"에 가장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연역의 세부적인 논증적 정합성의 문제와 이 연역과 '객관적 연역'과의 관련성의 문제는 따로 상세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연구주제이다.(cf. Düsing, 1968, pp.51-65)

23) 자연의 함목적성의 원리는 반성적 판단력이 '우연적인 자연의 다양함 속에서 정향(定向)하기 위해(sich orientieren)' 반드시 필요하다.(KU L) 이와 관련, 칸트가 논문 "사유 속에서 정향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was heißt:

서 과 연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과정은 주어진 표상들을 다른 표상들 및 능동적인 심의능력들(구상력, 오성, 이성)과 비교하고 견주어보는 과정을 함축한다. 반성적 판단력이 선취하는 '의미 있는 형식의 지평'은 구체적인 형상들과 법칙들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주어진 표상과 다른 표상들 사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반성과정은 의미 있는 형식(구조) 일반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개념에 경도되지 않고, 주어진 표상을 구상력, 오성, 이성 등 모든 상위의 인식능력들과 견주어보면서 이 표상이 이들 능력과 가질 수 있는 관계, 이들의 능동적 활동에 기여하는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숙고도 내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별대상의 구체적인 형상들을 생동하는 이미지의 산출능력(구상력), 객관적-개념적 일반화의 능력(오성), 총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형성의 능력(이성) 등과 비교하고 견주어보는 과정, 그리하여 개별 형상들과 이들 능력들 사이의 움직임은 야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은 구체적 표상들과 능동적 심의능력들 사이의 활기찬 움직임을 내포하는 자기성찰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성적 판단력이 이렇게 상호주관적 지평을 선취한다는 것이 특수자의 '우연성'을 뛰어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지평은 이를테면 특수자에게 다가가는 주관의 '존재론적 정향(orientation)'을 표현할 뿐, 객관적-대상적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 현실의 특수성과 우연성을 넘어서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관의 본질적 유한성과 구체적 경험의 무한성을 분명히 인정한 상태에서, 우연적인 것의 의미 있는 형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확보하는 과정이다.

sich im Denken zu orientieren?)"에서 얘기하는 '이성의 필연적 욕망'과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와의 관계는 상세하게 추적해 볼 만한 흥미로운 문제이다. (V, pp.267-283)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체적 현실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가능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은 근본적으로 다양성과 다의성(多義性)에 대해 열려 있는 성찰이다. 의미 있는 형식의 지평을 초월적으로 선취하는 성찰은 특정한 의미의 법칙과 구조를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주관적으로 지각, 유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형식(구조)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확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반성은 표상들과 심의능력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가능성과 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반성의 지향점은 물론, 반성에 참여하는 심의능력들과 이들의 역할을 미리 규정하지 않는다.²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이 모든 가능한 형식과 구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는 주관이 주목하는 개별대상들의 종류에 따라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이 다른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삶(생명), 문화, 역사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주관이 어떤 개별대상에, 어떤 관심을 갖고 주목하느냐에 따라, 이 대상의 의미 있는 형식과 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이 다른 의미와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실제 우리는 『판단력비판』에서 분석되고 있는 대상들 -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 미감적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예술작품, 자기목적으로서의 유기체,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문화적 현실 - 에 따라 반성과정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적 판단의 경우, 반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II.4. 반성의 구체적인 전개양상 : 취미판단의 경우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가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임을 논

24) 이 맥락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아렌트, 료타르, 데리다 등 현대철학적 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김석수, 1997 참조)

증하는 곳에서 비교적 자세히 반성의 필요성과 반성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KU XXIX-XXXVIII; EE IV-VII)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전체적으로 특수한 경험법칙들의 체계, 이른바 '논리적 체계의 형식(Form der logischen Systems)'(EE V)을 모색하는 판단력의 관점, 그리니까 대상에 대한 이론적 인식의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어, 우리가 재구성한 반성의 포괄적인 차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²⁵⁾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반성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관련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칸트가 단지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간접적으로만 언급한 부분을 기반으로 반성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논증적 중요성을 선명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3비판서의 여러 난해한 논점들을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토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취미판단의 분석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절(§)은 제9절 "문제의 연구: 취미판단에서 쾌감이 **대상의 판정(Beurteilung)**에 우선하는가, 아니면 이 판정이 쾌감에 우선하는가?"일 것이다.²⁶⁾ 칸트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을 '취미비판을 위한 열쇠'라(KU 27)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석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할 '어떻게 개별대상에 대한 취미판단이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KU §8)에 대한 해답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칸트는 여기서 취미판단의 쾌감이 주어진 표상에 '직접적으로 종속된'(KU 27)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오성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유희하고 있는 상태'(KU 28)²⁸⁾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유희상태에서

25) 특히 칸트가 '만약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가 없다면, 오성은 자기자신을 자연 안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고(KU L-LI) 얘기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26) Kulenkampff, 1974, pp.85-96; Fricke, 1990, pp.38-97

27) 서론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이후 적어도 두 차례 더 시도된다. 즉 취미판단의 필연성의 계기를 분석하고 있는 §§18-22절과 취미판단의 연역론인 §§32-38절 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8) 이미 『도덕형이상학의 정초』에 '심의능력들의 목적 없는 유희에 대한 즐거

두 능력이 서로 '인식 일반(Erkenntnis überhaupt)'을 위해 합치되고, 서로의 활동을 자극하고 고무시키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공동유희의 상태를 '표상(대상)에 대한 단지 주관적인(미감적인) 판정'(KU 29)이라 부르며, 이 상태가 판단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하며 전달가능한 심의상태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 판정이 아름다운 대상에서 느끼는 쾌감에 선행(vorhergehen)하기 때문에, 취미판단이 '주관적인 보편타당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 논증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쾌감에 선행하는 판정'과 '인식 일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판단력비판』에서 '판정'이 '반성'과 마찬가지로, 선험적 원리에 입각한 능력으로서의 취미(Geschmack)와 취미판단의 본질적인 규정근거(Bestimmungsgrund)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다른 미감적-주관적 판단과는 달리 정당하게 보편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취미판단의 쾌감을 동반하는 것은 '감각적 느낌'도, '의지의 규정'도 아닌 바로 '반성'이며(EE VIII)29), 그래서 단지 감각적 느낌에 의해 좌우되는 소위 감각취미(Sinnen-Geschmack)의 판단과 달리 모든 사람의 공감과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KU §8) 그러므로 '판정'은 취미판단을 내리는 주관이 주어진 대상의 표상을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고찰하는 것, 즉 상호주관적인 의미 있는 형식의 지평을 초월적으로 선택하고, 이 지평 위에서 이 표상과 다른 표상들, 그리고 심의능력(구

움'이 등장하고 있다.(GMS 77) Cf. Gadamer, 1977, pp.35-52

29) Cf. "모든 즐거움은 (...) 그 자체 쾌감의 느낌이다. 따라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모두, 그것이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 쾌적한(angenehm)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이 용인된다면, 성향을 규정하는 감각적 인상인지,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의 근본원리인지, 판단력을 규정하는 직관의 한갓 반성된 형식인지에 상관없이, 결과로서 쾌의 감정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모두 마찬가지로일 것이다."(KU 8f.); "우리가 자주 지적했듯이, 단지 판정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과 쾌락을 주는 것(느낌 속에서 유희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KU 222)

상력과 오성)을 비교하고 견주어보며, 이들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성찰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칸트의 다양한 서술을 병치시켜 읽어보면서, 이 반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1) 주관은 자연의 혹은 예술작품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 이들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전적으로 우연적이며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형식과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선험적으로 선택하며 다가간다.

2) 이렇게 선택된 지평 위에서 주관은 이들의 이미지들을 다른 이미지들, 그리고 인식과 판단을 위한 심의능력인 구상력과 오성에 비추어보고, 이들 이미지들(혹은 이로부터 가능한 의미 있는 형식)이 이들 능력과 맺을 수 있는 관계와 이들 능력의 활동을 자극하고 고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성찰한다.

3) 이러한 성찰은 심리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적 경험의 흐름이 아니라, 주관이 구체적인 대상을 미감적으로 경험할 때, 암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형식적-능동적인 반성의 원리로서 실천철학의 선험적 원리인 '정언명법'에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이제 주관이 이러한 선험적-형식적 반성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형상의 독특한 구도(Konfiguration)에 대해 감정적 즐거움을 느끼고, 이에 근거하여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취미판단을 내린다면, 이 판단은 다른 일반적인 감정적 판단(감각취미)과 원리적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취미판

30) "따라서 대상의 한갓 판정과 심의 안에서 결합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쾌가 아니라 **쾌의 일반성**이다. 그리고 이 판정은 취미판단에서 선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판단력의 일반적 규칙으로서 표상된다."(KU 150); "그러므로 취미는 주어진 표상과 (개념의 매개 없이) 결합된 감정의 전달가능성에 대해 **선험적으로 판정하는 능력**이다."(KU 161); "어떤 쾌를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개념적으로 이 쾌가 한갓 느낌에서 기인한 향락이 아니라, **반성에서 기인한 쾌**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예술로서의 미감적 예술은 감각적 느낌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을 표준척도로 (Richtmaß) 삼는 예술인 것이다."(KU 179)

단의 주관은 선험적-형식적 반성원리에 의해 인식과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능력인 구상력과 오성의 상호작용(상호촉진)의 관점에서 감정적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취미판단의 주관은 초월적 반성을 통해 이미 사적-주관적인 차원을 떠나 상호주관성의 차원으로 상승한 주관이며, 따라서 이미 자신의 쾌감에 대한 보편화 가능성을 검토, 확인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이다.³¹⁾

‘인식 일반’의 의미 역시 이러한 반성의 의미를 토대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특정한 개념을 향한, 특정한 개념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다.³²⁾ 그것은 우선 취미판단의 초월적 반성과정인 지닌 근본적인 개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미판단의 주관이 상호주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형식의 지평 위에서,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이념에 의해 한정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주어진 표상을 구상력과 오성에 비교하고 견주어보고 있는 상태, 이를 통해 ‘개념규정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난 이 두 능력 사이의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U §9; KU 68-72) 또한 ‘인식 일반’은 이른바 미적 이념(ästhetische Idee)의 본질적인 개방성 또는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취미판단의 대상인 감성적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비자의적인 주제적 통일성(unwillkürliche thematische Einheit)’

31) 취미판단의 주관은 자신의 즐거움이 개인적인 기억, 경험, 취향 등 ‘사적인 조건들’에서 기인한 ‘사적 감정 Privatgefühl’(KU 18)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제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KU 17): “따라서 미감적 반성능력은 오직 대상의 (완벽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관적 합목적성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반성능력이 단지 판단시 느끼는 쾌/불쾌를 통해서만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쾌/불쾌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지, 그래서 이 판단이 대상의 표상과 쾌/불쾌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이다.”(EE VIII 주석)

32) 취미판단은 ‘이론적인 인식판단도 아니고, 실천적인 인식판단도’ 아니다. “그것은 개념에 근거한 판단도 아니고, 또 개념을 목표로 한 판단도 아니다.(nicht auf Begriffe gegründet, oder auch auf solche abgezweckt)”(KU 14)

이 분명하고 일의적(一意的)인 개념들로 환원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이러한 이미지들 사이의 통일성 있는 구도가 어떤 완결된 구조와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 열려 있는 과정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식 일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미판단의 고유한 세계 해명의(Welterschließung) 역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별대상의 이미지들이 상황적-정서적 특수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호주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형식을 보여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통일성 있는 구도가 구체적이며 우연적인 세계에 대한 독특한 상황적-정서적 인지(認知)라는 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³⁴⁾ 이러한 상황적-정서적 인지가 상호주관적인 공감과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반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력비판」을 둘러싼 난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행'과 '매개'의 문제를 우리가 재구성한 초월적 반성의 의미와 연결시켜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의 반성이 좁은 의미에서 특수한 경험법칙과 개별대상의 형식들을 바라보고, 이들 사이의 개념적-법칙적 연관성을 찾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오히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이 세계 속에서 가능한 상호주관적인 형식과 구조의 지평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반성과정의 특수자의 표상을 다른 구체적인 표상들, 그리고 구상력, 오성, 이성 등 능동적인 심의능력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 이를 통해 심의능력들 사이의 활발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함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관이 이렇게 반성적

33) 여기서 칸트의 미적 이념에 대한 서술이(KU 192-193, 239-242) 앞서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의 경우처럼, 근본적으로 개념적-규정적 인식의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4) Scheer, 1997, pp.106-108 참조. 코퍼는 이와 관련, 개념적-추론적인 언어와 달리 시적 언어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의 정서와 욕망의 뉘앙스를 내포하고(konnotativ) 있다'고 말한다.(Kopper, 1983, pp.125-136)

판단력의 반성을 통해 우연적인 특수자들 사이에서 '존재론적 정향(Orientation)'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의미 있는 세계연관(Weltbezug)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 자신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 세계 속에서 상호주관적인 의미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선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성의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준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주관의 실천의 동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자유개념(실천철학의 영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반성과정의 심의능력들 사이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이들 능력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점도 주관의 의미 있는 실천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나오는 말

『판단력비판』은 오늘날까지 많은 철학적 문제에 대한 성찰에 생산적인 자극과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과 시사점의 원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라 생각되는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의 의미에 대해 비판적인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의 시도는 칸트가 지향한 것 안에 머무르면서, 그러나 칸트가 직접 서술한 것을 넘어서고자 하여, 일견 '무리한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데아 자체'의 의미가 '이데아에 대한 서술'과 다르듯이, '반성적 판단력' 및 '반성' 자체가 지닌 풍부한 함의와 이들에 대한 '관습적인 서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반성적 판단력과 반성이 지닌 초월적 의미와 중요성은 이러한 관습적인 서술의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반성적 판단력 및 반성의 체계적인 의미, 이들의 구체적인 작동양상을 충분히 해명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논의가 따로 필요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예컨대, 숭고함에 대한 미감적 판

단과 유기체의 목적론적 판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반성과정, 경험적 내지 이성적 관심과 결부된 취미판단에 있어서의 반성과정, 동일한 표상에 대해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동시에 숭고함의 관점에서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양상,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와 이성이념(총체성의 원리)의 관계,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반성의 의미, 소위 '함축된 지식(tacit knowledge)'과 미감적 반성판단의 관계, 이른바 '인상학적(physiognomisches) 내지 은유적(metaphorisches) 사유'와 반성적 판단력 내지 '미적 이념'과의 관계, 개별적인 사회문화적, 역사적 현상들을 대상으로 한 반성의 구체적 양상 등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우리의 재구성이 이들과 다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합목적성의 이념: 이론과 실천 사이, in: 『칸트와 미학』, 서울: 민음사, 1997
- 김광명,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의 문화의 의미와 그 실천철학적 함의, in: 『칸트와 문화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김석수,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현대 철학, in: 『칸트와 미학』, 서울: 민음사, 1997
- _____, 칸트 '문화' 개념의 현대적 의의, in: 『칸트와 문화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박필배, 칸트의 자연관과 문화, in: 『칸트와 문화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박영선, 아도르노의 칸트 미학 읽기, in: 『칸트와 문화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박진, 문화와 예술, in: 『칸트와 문화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_____, 초월적 반성의 원리, in: 『철학연구』 43, 1998
- 최소인, 판단력의 매개 작용과 체계적 통일의 의미, in: 『칸트와 미학』, 서울: 민음사, 1997
- 최준호, 칸트의 자연목적론, 그리고 형이상학, in: 『철학연구』 43, 1998
- 하선규, 전 비판기 칸트의 합목적성 개념, in: 『철학연구』 44, 1999
- 하선규, 철학방법론에 대한 칸트의 반성, in: 『헤겔연구』 9 (= 『헤겔과 근대정신』), 2000
- Baeumler, A., *Das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1923, Neudruck: Darmstadt, 1967
- Bartuschat, W., *Zum systematischen Ort der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M., 1972
- Baumanns, P., *Das Problem der organischen Zweckmäßigkeit*, Bonn, 1965
- Biemel, W., *Die Bedeutung von Kants Begründung der Ästhetik für die Philosophie der Kunst*, Köln, 1959
- Bubner, R., *Ästhetische Erfahrung*, Frankfurt/M., 1989
- Cohen, H., *Kants Begründung der Ästhetik*, Berlin, 1889
- Crawford, D.W., *Kants Aesthetic Theory*, Wisconsin/London, 1974
- Driesch, H., "Kant und das Ganze", in: Kantstudien XXIX, 1924
- Düsing, K., *Die Teleologie im Kants Weltbegriff*, Bonn, 1968
- Ferry, L., *Homo Aestheticus*, Éditions Grasset & Fasquelle, 1990,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서울, 1994
- Freudenberg, G., *Die Rolle von Schönheit und Kunst im System der Transzendental -philosophie*, Meisenheim, 1960
- Fricke, Ch., *Kants Theorie des reinen Geschmacksurteils*, Berlin /New York, 1990
- Gadamer, H.-G., *Die Aktualität des Schönen*, Stuttgart, ??

- Gerhardt, V. & Kaulbach, F., *Kant*, Darmstadt: Wiss. Buchges., 1989²
- Hegel, G.W.F.,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Werke in 20 Bde, Frankfurt/M, 1986
- Heidegger, M., *Nietzsche*, Bd.1, Pfulingen, 1961
- Honnefelder, L., *Scientia transcendes*, Hamburg, 1990
- Kopper, J., *Grundbegriffe der Ästhetik*, Frankfurt/M, 1983
- Kulenkampff, J., *Kants Logik des ästhetischen Urteils*, Frankfurt /M, 1978
- Lyotard, J.-F., "Das Interesse des Erhabenen", in: *Das Erhabene* (ed. Ch. Pries), Weinheim, 1989
- Marc-Wogau, K., *Vier Studien zu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Uppsala/Leipzig, 1938
- Mayer, M.E., *Rechnormen und Kulturnormen*, Breslau, 1903
- McLaughlin, P., *Kants Kritik der teleologischen Urteilskraft*, Bonn, 1989
- Mertens, H., *Kommentar zur Ersten Einleitung in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München, 1975
- Nelson, L., *Gesammelte Schriften*, 7 Bde, Bd. 7, Hamburg, 1974
- Odebrecht, R., *Form und Geist. Der Aufstieg des dialektischen Denkens in Kants Ästhetik*, Berlin, 1930
- Otto, M., *Ästhetische Wertschätzung*, Berlin, 1993
- Paetzold, H., *Ästhetik des deutschen Idealismus*, Wiesbaden, 1983
- Scheer, B., *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che Ästhetik*, Darmstadt, 1997
- Schiemann, G., "Totalität und Zweckmäßigkeit", in: *Kantstudien*, 1992
- Schmitz, H., *Was wollte Kant?*, Bonn, 1989

_____. "Das transzendente Kommunikationsgemeinschaft bei Kant", in: *Kommunikation und Reflexion*(ed. W. Kuhlmann & D. Böhler), Frankfurt/M, 1987

_____. *Der unerschöpfliche Gegenstand*, Bonn, 1990

Spaemann, R. & Löw, R., *Die Frage Wozu?*, München, 1991³

Sprengberg, H., *Zur Aktualität der Ästhetik Immanuel Kants*, Berlin/Frankfurt/M/New York, 1999

Wieland, W., *Urteil und Gefühl*, Göttingen, 2001

Inter-subjective Horizon of Significant Form or Structure

Ha, Sun-Kyu

(Abstract)

We do know very well that the reflecting power of judgement and the process of its reflection play a crucial role in the argumentation of the third Critique of Kant, the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ement*. But it is not simple to define what do both important terms exactly mean, for Kant's explanation of them is mainly based on the standpoint of theoretical cognition. Without critical awareness, the meaning of the reflecting power of judgement would result in the problem of logic of induction in which man deals with possibilities and procedures of the discovery of general rules among particular phenomena.

No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systematical importance of the reflecting power of judgement and its reflection in order to provide a fresh plausibl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of the third Critique. I first consider objects of reflection, namely complex extension of the concept 'contingent things' that could not be determined in anticipation by the universal ontology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Our accurate reading of Kant's texts reveals that 'the contingent' includes not only particular empirical laws and forms of nature, but also fine and sublime configurations of nature and artworks, and also implication of concrete social-historical reality.

I then move on to make an inquiry into the process of reflection of the reflecting power of judgement, analyzing Kant's argumentations in the chapter "On the Ambivalence of Reflection-Notions"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a part to which man rarely pays attention in general.

Emphasizing the concepts 'transcendental reflection' and 'transcendental topica' that Kant regards as necessary to avoid the jeopardy of excessive construction of intellectual metaphysics such as Leibniz', I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the reflection in the third Critique as a transcendental act of mind by which an inter-subjective horizon of significant form or structure is ontologically anticipated. Of course, this act doesn't mean preceding in time, but ontological pre-structuring of particular contingent things we may encounter in our concrete world experience. Finally, I critically review several important problems regarding judgements of taste such as 'judgement(Beurteilung) before pleasure' and 'cognition in general', and I try to show that they can be more obviously comprehended than before, if we take account of the suggested ontological meaning of reflection.

Key Words reflecting power of judgement, transcendental reflection, purposiveness of nature, contingency, form of a logical system, significant form, aesthetic idea, judging of the object

투고논문접수일	2004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2004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2004년 11월 10일